‘종교자유’ 둘러싼 정치 지형 살피다

한국 근현대사와 종교자유

주목! 학술서- 이진구의 〈한국 근현대사와 종교자유〉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2008년 8월 27일 불교도 20만 명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 모였다. 스님과 불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을 규탄하며 종교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불교계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던 당시 이명박 정부는 공직자 종교편향센터를 설치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기실 2000년대 이후 유독 ‘종교자유’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불거졌다. 불교 신자인 오태양은 자비 사상과 평화주의 신념을 내세워 병역을 거부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논쟁에 불을 붙였고, 대광고 고등학생으로서 채플 자유화를 요구하면서 1인 시위와 단식투쟁을 벌인 강의석은 학교 안의 종교자유 문제에 불을 지폈으며,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은 기독교 집회에서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내용의 봉헌서를 낭독해 이른바 ‘서울시 봉헌 사건’을 일으켰다.

발단의 경위는 조금씩 다르지만 세 가지의 사건은 병역(군대), 교육(학교), 공직사회에서 종교자유가 여전히 뜨거운 쟁점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진구 한국종교문화연구소장의 〈한국 근현대사와 종교자유〉는 주목할 만하다. 한국 근현대사 안에서 종교자유 변화와 이와 얽힌 구조적 지형들을 통합적으로 조망하고 있다.

기실 종교자유는 매우 다양한 모습을 띠면서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지만 그동안 학계의 연구는 개별 사안 중심의 연구였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의 종교자유 문제의 전반적 성격과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

이 책에서는 한국 근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종교자유 문제를 조망하면서 종교자유의 시기별 특성과 함께 구조적 측면에도 주목했다. 시기적 측면에서는 개항기, 일제하, 군사정권기, 민주화 이후 시대 등 네 시기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개항기의 종교자유 담론은 서구종교인 천주교와 개신교의 선교활동을 보장하는 교두보 역할을 주로 한 반면, 일제강점기에는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 신사참배, 종교단체법의 제정을 둘러싼 식민권력과 선교권력의 대립 구도 속에서 종교자유 문제가 주로 부상했다.

군사정권 하에서는 진보적 개신교 진영의 선교자유 담론과 정부 관료의 정교분리 담론의 충돌 과정에서 종교자유가 주요 이슈로 부상했지만, 양심적 병역거부 및 미션스쿨과 관련된 종교자유 문제는 수면 아래에 잠복해 있었다. 민주화 이후에 비로소 양심적 병역거부와 미션스쿨의 종교자유가 공론의 장으로 떠올랐다.

이 시기부터 특히 공직자의 종교자유 문제를 비롯해 시민단체의 종교법인법 제정, 보수 개신교 진영의 해외선교 등이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 연장선상에서 최근에는 특정 종교의 배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종교 활동 내지 종교적 신념표현을 ‘종교자유’로 포장하거나 강변함으로써, 종교자유라는 말의 오염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 안에서 종교자유는 ‘살아있는’ 주제로 자리잡았다.

특히 이 책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국가권력이 종교자유를 지배의 테크놀로지로 활용하는 방식과 종교권력이 자기 방어적 선교의 도구로 종교자유를 활용하는 방식에 주목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각 주체가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종교자유의 규범과 이상을 활용하는 ‘종교자유의 정치학’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성시화와 템플스테이를 주제로 한 챕터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종교 갈등은 국가나 종교단체, 개인이 아닌 종교단체 간의 대립으로 나타나고 있다. 불교는 공직자의 종교편향을 문제 삼지만, 보수 개신교는 개인의 종교 자유로 방어한다. 반대로 보수 개신교는 템플스테이 예산 지원을 종교편향으로 지적하지만, 불교는 템플스테이는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임을 강조한다.

저자는 “한국 사회는 불교와 보수 개신교가 국가 권력을 매개로 대립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두 거대한 종교권력의 대립 구도 속에서 국가 권력이 종교계의 ‘표’를 의식하며 눈치를 보고있는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2008년 8월 27일 열린 범불교도 대회의 모습과 2010년 발생한 봉은사 땅밟기 사건 이후 신학대생들의 사과 방문의 모습. 모두 종교자유와 관련된 이슈들이다.

근현대사 內 종교문제 조망

초기 소수종교 선교 보장서

국가 · 종교권력 활용으로 이동

종교편향 · 종교평화법 · 훼불 등

불교VS보수개신교 대립 형국

갈등구도 속 정치권 눈치보기

“다솔사 안거 법회 ‘친일’ 아니다”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

퇴계학논집 논문서 주장

1939년 다솔사 공문 발굴 · 분석

친일 아닌 학술대회 성격 강해



1939년 8월 경남 사천 다솔사에서 열린 하안거 법회가 친일이 아닌 학술대회 성격이 강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사진>는 〈퇴계학논집〉 24권에 기고한 논문 ‘다솔사 안거 법회(1939), 개요와 성격’서 이 같이 주장했다.

논문에서 김광식 교수는 다솔사가 행사 개최 20일 전인 1939년 7월 21일자로 선리참구원(현 선학원)에 보낸 공문인 ‘소화 14년도(1939) 방장산 다솔사 하안거 개요’를 발굴 · 분석했다.

공문은 일본 천태종서 다솔사에 보낸 일종의 법회 기획서로 주최 · 후원 · 취지 · 장소 · 일시 · 행사 내용 등 법회의 구체적인 개요와 내용이 담겼다.

하안거 법회 행사는 ‘조선문화 친선수행’을 목적으로 〈법화경〉에 의거해 죄업을 참회하는 법화 삼매 수행과 상행삼매 수행, 법화팔강 수행, 학술 · 문화 연구 등이 이뤄졌다.

1939년 8월 21~26일 열린 법회는 당시에는 봉행되기 어려운 대형 행사였다. 국내에서는 율사이자 밀교의식의 권위자였던 영암 스님을 대표로 쌍계사 범해, 통도사 구하, 범어사 경산, 해인사의 경하 · 고경 · 환경 스님 등 선지식 40명이 대거 참석했고, 일본 측에서도 유명 불교학자와 스님 35명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범술 스님의 주도로 열린 다솔사 법회는 2000년대 중후반 친일 논란에 휩싸였고, 불교계 내부 논쟁으로 이어졌다.

김광식 교수는 당시 다솔사의 문화적 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대회였음을 주목했다. 식민지 시설 대형 법회, 행사를 기획 · 추진할 수 있었던 다솔사의 문화적 능력을 재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다솔사 법회에 나타난 한국불교 문화적 자신감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대형 안거 법회라는 문화적 행사를 식민지 통치국인 일본불교와 대등하게 진행한 실력은 간단치 않았다는 것이다.

김광식 교수는 “다솔사 하안거 법회는 친일 행사와는 관련이 없는 순수한 학술대회 성격이 강했다”며 “오히려 식민지 통치국인 일본불교와 대등하게 진행한 다솔사의 문화적 능력은 물론 당시 한국불교의 문화적 자신감을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식민지 통치가 심화되던 시절, 식민지국과 피식민지국의 스님들이 함께 모여 학술행사를 벌인 것은 의미가 크다”며 “일제하 양국의 감정이 극단으로 치닫던 시절 경남 오지의 사찰인 다솔사에서 있었던 한일 불교문화 행사의 의미에 대해 새롭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고전 한문 전문가 되고 싶다면

동국대 불교학술원 2학기 한문아카데미 모집

8월 23일까지 접수… 9월 2일 개강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승석) 한문아카데미에서 8월 5일부터 8월 23일까지 2019년도 2학기 ‘심화과정’과 ‘기본과정’ 연수생을 모집한다.

4학기 동안 30학점을 이수하는 심화과정은 2019년 1학기부터 1과목 증설돼 총 5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다. 강의는 △불성론(월, 박해당) △능엄경(화, 선암 스님) △불가문집 번역연습(수, 성태용) △한시특강(목, 이상하) △서장(금, 문광 스님)이 진행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한문아카데미는 기본과정 수강생도 모집한다. 학기당 15주 강의가 진행되는 기본과정은 30학점을 이수하여 수료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선발연수생’과 한 과목씩 선택해 수강하는 ‘일반연수생’이 나뉜다.

강의는 △법화경(월, 금천 스님) △범어-한문 경전강독(화, 원과 스님) △고급한문법(수, 안재철) △구사론(목, 박인성) △벽암록(금, 박영록)이 이뤄진다. 강의 시간은 기본과정과 심화과정 모두 오후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이다.

원서 접수는 8월 5일부터 8월 23일까지며,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의 선발연수생에 대한 면접 및 필기 전형은 8월 24일에 실시된다. 기본과정 선발연수생은 불교 및 한문불전 공부에 관심이 있는 4년제 대학 재학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며 정원은 30명이다. 심화과정 선발연수생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이거나 그에 준하는 경력 및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지원할 수 있고, 필기고사 전형을 거쳐야 하며 정원은 10여 명이다.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의 선발연수생 수업료는 학기당 60만원이고, 기본과정 일반연수생 수업료는 과목당 20만원이다.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 한문아카데미 수료생의 수강료는 기본과정은 선발연수생 42만원, 일반연수생 14만원, 심화과정 선발연수생 30만원이다. 조계종 스님의 경우 기본과정과 심화과정 모두 선발연수생은 수강료가 면제된다. 또한 조계종 스님이 선발연수생 과정을 수료할 경우 3급 승가고시에서 2년의 교육경력을 인정받는다.

신성민 기자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천년의 숲, 천년의 사찰

BTN 불교TV 영상 공모전

2019.03.25(월) ~ 10.30(수)

공모주제

한국전통(불교)문화와 사계(四界), 불교행사 등 불교와 관련된 자유주제

출품방법

홈페이지에 신청서와 작품을 함께 메일로 접수
(접수처:btnucc@btn.co.kr)
메일 제목 및 파일명은 〈이름_작품명〉으로 기재
*반드시 연락처 기재바랍니다.

시 상

대상(1팀)	상금 500만원 및 상패
금상(1팀)	상금 200만원 및 상패
은상(1팀)	상금 100만원 및 상패
동상(3팀)	상금 50만원 및 상패
입상(5팀)	상금 10만원 및 상장

*응모편수, 심사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해당작 없을 경우 시상에서 제외.

공모일정

응모기간 : 2019년 3월 25일(월) ~ 2019년 10월 30일(수)
발 표 : 9월 중 BTN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공모대상

전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2~4인) 구성으로 참여 가능

출품규격

해상도 : 1920 X1080
포맷 : mp4, avi, mov 등의 HD 고화질 동영상
작품분량 : 30초~5분 이내
영상형식 : 스팟, 뉴스, 찬불가 뮤직비디오, 60초 영상 등

문 의

공모전 담당자 : 02) 3270-3417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BTN홈페이지(www.btn.co.kr)

BTN 붓다회 동참문의 1855-0108 | olleh 233번 | tv 305번 | U+tv 275번 | skylife 181번 | 지역케이블문의:02.3270.3300